

광양 국·공립어린이집 남발로 소규모 시설 위기

도심권 시설, 인근 읍·면·동 원아까지 모집

면단위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 대책 세워야

광양시가 면 단위 어린이집들이 수 융합 ‘어린이’가 없어 폐쇄 위기에 몰렸다. 이들 어린이집은 소재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별다른 구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관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878곳의 어린이 보육시설 가운데 수용인원이 적정 수효의 76% 수준이어서 소재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폐쇄 위기에 처한 광양시 면 단위 S 어린이집은 1998년 120명을 인가받아 15년간 한 차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채 해마다 원아가 줄어 현재 19명의 원아만 남아 있는 등 면 단위 어린이집은 고사 위기에 몰려 있다. 이들 시설은 최근 들어 원장 급여조차 마련하지 못해 지난달부터 교사만으로 어렵사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가 기존 어린이집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인근 거리인 진상면(2007년 52명 인가), 태인동(2010년 56명 인가)에 국공립 시설을 추가로 인가해 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비도심권 시설의 상황은 진월면 120명 정원에 19명(16%), 골약동(정원 74명에 현원 13명), 봉강면(정원 157명에 현원55명), 광양읍(정원 3316명, 현원 2338명) 등으로 시 평균인 76%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시의 영터러 보육수요 조차 및 정책 판단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면 단위 어린이집의 몰락을 초래한 셈이다.

S어린이집 관계자는 “3년 전부터

국립 시설도 진상면 출생아동은 30여 명밖에 없어 진월면, 광영동, 옥곡면, 중마동까지 원아를 유치해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도심권 시설의 상황은 진월면 120명 정원에 19명(16%), 골약동(정원 74명에 현원 13명), 봉강면(정원 157명에 현원55명), 광양읍(정원 3316명, 현원 2338명) 등으로 시 평균인 76%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시의 영터러 보육수요 조차 및 정책 판단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면 단위 어린이집의 몰락을 초래한 셈이다.

S어린이집 관계자는 “3년 전부터

시에 소재지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해 지난 2011년 전남도에 이에대한 검토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해당 시·군 단체장이 보육수요에 맞춰 소재지 변경은 판단해야한다고 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보육수요가 없어 소재지 변경은 어렵다며 구두 협의는 했지만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초 도심권에 보육수요가 발생되자 신규 어린이집을 25곳이나 인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피부에 양보하세요”

여수동백화장품 ‘콤퀸’ 5년만에 재출시

여수시가 새롭게 개발한 동백화장품(사진)을 출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동백열매를 재료로 사용한 여수동백화장품 ‘콤퀸’ 3종 세트와 신상품 카멜리아오일을 12일 출시하고 판매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06년 동백열매 추출오일로 만든 화장품을 개발했으나 관료개혁의 한계로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출시한 동백화장품 ‘콤퀸’은 동백의 이미지를 강화한 디자인을 도입해 시각적인 세련미를 높였다.

시는 기존 판매제품 중 효능도가 높았던 삼푸, 컨디셔너, 에센스 등 3종에 대해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고 윤기를 더해주는 동백오일의 기능을 강화해 이번 제품에 반영했다.

또 신상품인 카멜리아 오일은 동백종자유 특유의 비릿한 향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색 등을 정제한 무항취 순도 100% 동백오일로 피부 및 두피마사지용으로 개발했다.

‘콤퀸’의 판매가격은 헤어제품

인 삼푸(500ml), 컨디셔너(500ml), 에센스(100ml)로 구성된 3종 세트는 2만원, 카멜리아오일(50ml)은 1만원으로 책정,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콤퀸 2000세트와 정제오일 3000세트를 생산해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등 판매처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도시 여수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콤퀸’의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내 화장품 업계가 진출하고 있는 중국시장에도 수출해 지역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보성 ‘학교 숲’에서 미래를 꿈꾼다

득량남초서 생태 숲 조성 준공 기념식... 야생화 등 식수행사

보성군은 15일 “지난 11일 득량남초등학교에서 보성군, 보성교육지원청, 득량남초등학교 운영위원, 학생, 주민, 학교 숲 조성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숲 조성사업 준공 및 천년수, 야생화 등 식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을 통해 득량남초 팔각정 정자원터 및 교문에서 교실출입구까지 녹색 황토 길을 조성했으며, 운동장 주변에 느티나무, 편백, 목서, 에머널드골드 등의 다양한 수목과 맥문동, 꽃잔디 등의 초화류 총 22종 5000본을 식재했다.

태풍으로 넘어진 봉화산 정상상의 팔각정자 자재를 이곳으로 옮겨 설치, 학생과 주민 모두 사용하도록 했다.

지난 1996년도에 개교한 득량남초는 득량초, 득량서초, 득량비봉초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되면서 득량면 소재지 주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초등학교다.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의 무지개학교로 선정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연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내와 최근에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열차 안에서 차 한잔의 여유

지난 12일 남도해양관광열차 시승행사에 참가한 여행객들이 보성군에서 운영하는 다레실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남도해양관광열차 다레실은 보성군과 하동군, 코레일이 함께 운영하며, 11일부터 25일까지 10차례의 시승행사를 거쳐 오는 27일 정식 운행된다.

<보성군 제공>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북

단 신

남원시 추석연휴 풍성한 국악무대

추석 명절을 맞아 남원시 곳곳에서는 각종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추석당일인 19일 국립민속국악원은 예원당에서는 ‘중추가절 풍요를 꿈꾸다’를 무대에 올린다. 민속무용인 ‘강강술래’를 비롯해 판소리 ‘흥부가’, 기악 합주 ‘태평소와 관현악’, 남도민요 관월가·풍년가·농부가, 민속무용 ‘흥’ 사물놀이 ‘판국’ 등 신명난 무대가 관객과 함께한다.

또 국립민속국악원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로 널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우리 조상이 즐기던 민속놀이를 국악원 앞마당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옛 풍습 재현으로 큰 호응을 받는 ‘신관사또 부인행차’ 상설공연이 20일부터 22일까지 사람의 광장과 광한루원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신관사또 부인행차에는 춘향전, 마당극, 관광객 주리체험, 관광객 포토존 등이 마련돼 흥을 돋우는 것으로 기대된다. 21일에는 광한루원 수증무대에서 국악뮤지컬 ‘가인춘향’이 관객을 기다린다.

제1장 만남에서 제10장 재회를 통한 춘향과 이도령의 신분을 초월한 송고한 사랑 이야기가 전개된다. 가인춘향은 내달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광한루원 수증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전주물꼬리풀’ 꽃피우다

1912년 일본 식물학자가 전주에서 발견, 세상에 알려졌으며, 1969년 식물학자인 이창복씨가 전주의 지명을 본떠 ‘전주물꼬리풀’로 명명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지자체 비리 일록... 행정공백 우려

임실 ‘낙마’ 부안 ‘재판’ 진안 ‘암수수색’ 장수 ‘조사’

단체장들 잇따라 소환·구속... 도덕성 해이 ‘심각’

전북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단체장의 각종 비리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어 민선 5기를 9개월 남긴 시점에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금품수수, 이권 개입, 권한 남용 등에 의한 피해는 단체장 본인도 물론 지역과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렴과 도덕성이 단체장 선출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전임 민선군수 4명 모두가 처벌된 임실은 건설업자에게 8000여만원을 받아 32개월간 재판 받은 강완묵

(54) 민선5기 군수마저 결국 낙마,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새삼 뒤집어졌다.

강 군수는 두 차례 파기환송으로 고법에서 3번이나 당선무효령을 받은 이채로운 기록을 남겼지만, 결국 3번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부안군은 김호수 군수가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1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6급 이하 공무원 서열·평정 조작,

인사서류 허위 작성, 특정공무원 승진 지시 등이 김 군수의 주요 혐의다.

그는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모두 부인하지만, 승진명부 등의 서류를 숨긴 혐의는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진안군도 군청 비서실장이 공무원 명의의 계좌에 7억여원의 거금을 관리해온 의혹으로 지난 13일 군수실과 비서실이 암수수색됐다. 비서실장은 지난달 주재기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의 돈이 송영선 군수와의 연관이 있는지 밝혀질지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또 장재영 장수군수는 군청 발주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장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경찰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이 밖에 군산시가 하수관개 사업, 고창군이 갯벌지구 민간위탁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도내 자치단체의 ‘수난’은 도덕성 해이, 뿌리깊은 금품수수 관행, 권력 남용 등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반대세력이나 입지자들의 제보와 투서가 크게 늘어 수사대상도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 또는 인지된 정보가 모이고 자체 수사력이 높아져 다양한 수사가 이뤄지고 또 대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정재용기자 jjv0681@

전주 아중저수지 수변공원 준공기념·음악회

전주 기린봉 뒷자락에 자리한 아중저수지에 수변산책로와 테마광장 등을 설치하는 수변공원 2차 조성사업이 끝나 지난 14일 아중저수지를 사랑하는 모임 주관으로 준공기념 및 주민 화합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아중저수지 내에 설치된 수상테마광장은 전주시가 지난 3월 착공한 바

있으며, 덕진공원(취향정)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날 음악회에 참석한 송하진 전주시장은 “도심과 자연이 만나는 수변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금과 방축마을 리모델링 73억 예산 투입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 금과면 방축마을에서 전국 처음으로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금과 방축마을에는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2억원, 자부담 24억원 등 모두 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노후주택 신축 및 개·보

수, 빈집 철거 후 도시민 주말농장조성, 마을경관 정비, 공공 어린이집 신축,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민자유치를 통한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주민들은 자부담으로 주택 개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참여하고, 마을기반시설과 경관개선 등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은 군에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공무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지난 12일 상인회 임원들과 함께 생고을시장 등 3개 시장을 찾아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장보기를 한 물품은 나눔의 집 등 3개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정읍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전통시

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달 30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매일 장보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9월 한 달 동안을 ‘전통시장 매일 장보기’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도시가스, 추석 맞아 ‘사랑의 쌀’ 기증

올해도 추석을 맞아 전북도시가스 가 사랑의 쌀을 기증했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5일 “최근 전북도시가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kg짜리 쌀 500포대(24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시가스는 지난 2002년부터 12년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

년 쌀과 추석을 정기적으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만 3억3000만원에 달한다. 기증받은 ‘사랑의 쌀’은 소년·소녀 가장 97세대와 홀로어르신 38세대, 사회복지시설 20개소, 공공기관 3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